

# 총만 쓰고 방콕... 그래도 응원단엔 살며시 미소

진해에 여장품 22명의 소규모 선수단 숙소생활 비공개...우리측 경호 삼엄 딱딱했던 초반보다 표정은 누그러져 "경기에만 집중할 것" 인터뷰는 사절

제52회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90여 개국, 4400여 명의 선수단(이하 임원 포함)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고 있다. 국제사격연맹(ISSF) 주관의 4년 주기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국내에서 열린 것은 1978년 서울대회(제42회) 이후 40년 만이다.

대회 개최국인 우리가 225명을 출전시킨 가운데 러시아(194명)~독일~중국(이상 177명)~인도(167명)~미국(165명)~우크라이나(111명) 등 7개국이 100명 이상의 대

규모 인원을 파견했다.

북한은 소규모 선수단(22명)이 방한했다. 선수 12명·임원 10명으로 구성된 북한 선수단은 공식 입국일인 지난달 31일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중국 베이징을 거쳐 입국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창원 일원에 29개 호텔(객실 21107개)을 마련했으나 북한은 창원에서 다소 떨어진 진해에 위치한 이순신리 더샵국제센터에 머물고 있다. 올해 4월 개관한 5층 규모의 건물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북한 사격대표팀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4인천아시아게임(AG) 이후 4년 만이다.

1982뉴델리AG 사격 7관왕 서강산(64) 단장과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 50m 권총 동메달리스트 김성국(32)이 중심이 된 북한 선수단의 숙소 생활은 공개되지 않았

다. 경기장 내에서도 조용한 행보다. 교류도, 대화도 거의 없다. 웃음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끝난 자카르타-팔렘방AG에서 북한 선수단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국적이 다른 선수들과 어울려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기타 국가 선수단과도 큰 차이가 있다.

당연히 경호도 삼엄하다.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만큼 상당수 경호 인력이 따라붙는다. 심지어 휴먼부스와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그림자처럼 보호한다. 휴게 부스 역시 따로 마련돼 일체의 접촉이 불가능하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장비 정리가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사격장을 빠져나간다.

그래도 분위기는 조금씩 밝아진 듯 하다. 입국 당일부터 북한 선수들은 경기 현장

찾아오는 응원단에게 수줍게 손을 흔들고 눈빛을 교환하며 살며시 미소를 짓는 장면을 연출했다. 입을 꼭 다문 채 움직이는 패턴은 변화가 없어도 딱딱한 표정은 서서히 풀리고 있다.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다. 2010년 독일 뮌헨, 2014년 스페인 그라나다 대회에서 금·은·동2개를 획득한 북한은 창원에서도 두드러진 결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결선 진출 대상을 가리는 본선 통과가 현실적인 목표일만큼 실력은 그리 우수하지 않다. 사격 관계자는 4일, "성적 걱정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귀뻐했다. 조직위를 통한 공식 인터뷰 요청, 경기 후 미스트 존 인터뷰를 피할 때마다 북한 관계자는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를 댔다.

창원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전북 일원서 99회 전국체육대회 47개 종목 2만4924명 참가신청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는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7개 종목, 총 2만4924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지난 8월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6323명의 임원과 1만 8601명(남 1만1889명·여 6712명)의 선수가 대회 참가를 신청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에서 총 1575명의 선수가 참가 신청해 최다 신청 시도가 됐다. 1447명의 선수가 신청한 서울특별시사가 그 뒤를 이었다.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종목은 육상 종목으로 총 1381명이며, 축구와 야구·소프트볼 종목에서 각각 1378명, 833명의 선수가 참가 신청했다.

참가신청 선수 중 최고령자는 사격 종목의 손정환(1948년생·서울) 선수. 최연소자는 정구 종목의 백단비(2003년생·대전) 선수이다.

한편 이번 전국체육대회는 철인3종 남고부, 산악 여일반가 시범종목으로 신설됐다. 종목 저변 확대 및 국제스포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7일 오후 2시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시·도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운영 방향 설정, 토너먼트 종목 대진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 10m 공기권총 김보미, AG탈락 아픔 딛고 국제대회 3위 최고 성적 "21·22발 실수...기록 의식해 흔들렸다"

김보미·김민정·곽정혜 단체전 銀남자 권총 50m, 단체전서 값진 금

김보미(20·IBK기업은행)가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여자 10m 공기권총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보미는 4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결선에서 218.8점으로 3위에 올랐다. 예선 8위(580점)로 어렵게 결선에 안착해 초반 선두에 오르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후반을 향할수록 저조한 기록이 나와 3위로 밀렸다.

결선은 진출자 8명이 10발씩 쏜 뒤 이어지는 2발마다 최하위를 탈락시키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김보미는 최후의 3명까지 생존해 메달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경합 부족에 발목을 잡혔다. 꾸준히 10.0점 이상을 쏘아가면서 흐름을 탔으나 21·22번째 발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 표적지에 8.7점과 9.5점이 찍혔다. 결국 금메달은 안나 코라카키(그리스), 은메달은 조라나 아루노비치(세르비아)에게 돌아갔다.

믿을 수 없는 역전을 당한 뒤 눈물을 보인 김보미는 "처음에는 내 사격만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었다가 점차 기록을 의식해 흔들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충분히 값진 결실이었다. 무엇보다 부족한 경험을 뚫고 얻은 소득이다.

올해 실업 2년차 김보미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가발라에서 열린 월드컵 6위가 역대 국제무대 최고 성과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AG)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낙마했다. 그만큼 단단히 의지를 다진 세계선수권대회였다. 김보미는 "훈련 때 게으름을 부린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내 최선이기엔 후회는 없지만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다.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고 털어놨다.

자카르타-팔렘방AG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은메달과 25m 권총 동메달을 획득한 여자 사격 간판 김민정(21·KB국민은



박대훈(동명대)~한승우(KT)~이대명(경기도청·이상 왼쪽부터)이 4일 열린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남자 50m 권총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시상대 꼭대기에 올라 밝게 웃고 있다. 창원 | 뉴시스

행)은 결선에서 가장 먼저 탈락했다. 12번째 발에서 6.8점이 나왔다. 그래도 단체전 은메달은 한국의 몫이었다. 단체전은 개인전 출전 3명의 예선 합산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데, 김보미-김민정-곽정혜(32·IBK기업은행)를 내세운 한국은 총점 1734점으로 중국(1739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대명(30·경기도청)과 박대훈(23·동명대), 한승우(35·KT)는 남자 50m 권총 단체전에서 1670점을 합작하며 1위에 올랐다. 한국 사격이 세계선수권대회 권총 50m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0 뮌헨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창원 | 남정현 기자

### 스포츠도도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3일>												
<b>•팀순위</b>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	연속	타율	방어율	홈런	득점
1	두산	113	73	40	0	0.646	-	1승	0.308	5.07	0.714	712
2	S K	112	62	49	1	0.559	10.0	1패	0.283	4.55	0.593	646
3	한화	114	62	52	0	0.544	11.5	2패	0.275	4.77	0.596	563
4	넥센	118	61	57	0	0.517	14.5	1패	0.292	4.93	0.467	678
5	L G	116	56	59	1	0.487	18.0	2승	0.299	5.33	0.582	663
6	삼성	116	54	59	3	0.478	19.0	1승	0.288	5.18	0.491	613
7	롯데	110	51	57	2	0.472	19.5	3승	0.290	5.25	0.491	625
8	K I A	110	51	59	0	0.464	20.5	2패	0.298	5.36	0.561	651
9	K T	113	47	64	2	0.423	25.0	1승	0.274	5.35	0.455	578
10	N C	116	47	68	1	0.409	27.0	1패	0.258	5.44	0.424	497
○=승 ●=패 □=무 * =홈경기 ※ 프로야구 기록실이 신문제재 시간관계로 일부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메이저리그 <4일>												
<b>•아메리칸리그</b>												
순위	동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중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서부지구	승
1	보스턴	95	44	1	0.684	클리블랜드	77	60	1	0.562	휴스턴	85
2	뉴욕Y	86	52	2	0.619	미네소타	63	74	2	0.460	오랜던	83
3	탬파베이	74	63	3	0.539	시카고W	56	82	3	0.402	시애틀	77
4	토론토	62	75	4	0.450	디트로이트	55	83	4	0.396	L A A	67
5	볼티모어	40	98	5	0.291	캔자스시티	46	91	5	0.338	텍사스	60
<b>•내셔널리그</b>												
순위	동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중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서부지구	승
1	애들랜트	76	61	1	0.556	시카고C	81	56	1	0.591	콜로라도	75
2	필라델피아	72	65	2	0.523	밀워키	78	61	2	0.562	L A D	75
3	워싱턴	69	69	3	0.500	St.루이스	76	62	3	0.550	애리조나	74
4	뉴욕M	62	75	4	0.448	피츠버그	67	71	4	0.484	샌프란시스코	68
5	마이애미	55	83	5	0.398	신시내티	59	79	5	0.428	샌디에고	55
<b>•타격</b>												
<b>아메리칸 리그</b>				<b>내셔널 리그</b>				<b>타점</b>				
타율	출루	타점	타점	타율	출루	타점	타점	타율	출루	타점	타점	
0.338	0.415	40	115	0.320	0.315	31	100	0.338	0.415	40	115	
0.336	0.321	37	95	0.320	0.315	31	100	0.338	0.415	40	115	
0.318	0.318	34	92	0.309	0.309	33	89	0.318	0.318	34	92	
0.309	0.309	33	89	0.309	0.309	33	89	0.309	0.309	33	89	
<b>•투수</b>												
<b>아메리칸 리그</b>				<b>내셔널 리그</b>				<b>탈삼진</b>				
다승	방어율	탈삼진	탈삼진	다승	방어율	탈삼진	탈삼진	다승	방어율	탈삼진	탈삼진	
17	1.97	243	243	17	1.68	260	260	17	1.68	260	260	
17	2.02	240	240	17	2.23	230	230	17	2.23	230	230	
17	2.22	219	219	17	2.28	214	214	17	2.28	214	214	
16	2.78	214	214	16	2.80	199	199	16	2.80	199	199	
15	2.80	199	199	15	2.96	176	176	15	2.96	176	176	

경기결과												
L A A	3-1	텍사스	시애틀	2-1	볼티모어							
밀워키	4-3	시카고C	피츠버그	5-1	신시내티							
캔자스시티	5-1	클리블랜드	휴스턴	4-1	미네소타							
오랜던	6-3	뉴욕Y	마이애미	3-1	필라델피아							
콜로라도	9-8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4-3	St.루이스							
보스턴	8-2	애들랜트	뉴욕M	4-2	L A D							
시카고W	4-2	디트로이트	샌디에고	6-2	애리조나							
탬파베이	7-1	토론토										
<b>프로골프 &lt;4일&gt;</b>												
<b>•PGA TOP10</b>												
<b>델 테크놀로지 챔피언십 최종라운드</b>												
① 다생보(미국)	-16	② 로즈(잉글랜드)	-14	③ 스미스(호주)	-13							
④ 히데카(일본)	-12	⑤ 핀(대만)	-12	⑥ 파나워(미국)	-12							
⑦ 존슨(미국)	-11	⑧ 왓슨(미국)	-11	⑨ 배오스(스페인)	-11							
⑩ 안병환(한국)	-6	⑪ 김시우(한국)	-5	⑫ 김민환(한국)	+5							
<b>아마추어 경기결과 &lt;4일&gt;</b>												
<b>시각</b>												
●2018 ISSF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한국 창원) ●10m 공기권총 여자 개인전 결선=① 코라카키(그리스), ② 아르노비치(세르비아), (동) 김보미(한국), ④ 김민정(한국) ●10m 공기권총 여자 단체전 결선=① 중국, (은) 한국, ③ 러시아 ●50m 권총 남자 개인전 결선=① 미타르발(인도), ② 미체(세르비아), (동) 이대명(한국), ③ 박대훈(한국), ④ 한승우(한국) ●50m 권총 남자 단체전 결선=(금) 한국, ② 세르비아, ③ 중국												
<b>사이클</b>												
●2018 Tour de DMZ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인제-고성) ●스테이지5 개인전 순위=① 리제스다제코(네덜란드), ② 후쿠다(일본), ③ 히노(일본), ④ 장훈(한국) ●스테이지5 한국선수 순위=① 정훈(한국), ② 김태호(한국), ③ 박주영(한국) ●스테이지5 단체전 순위=① 카자흐스탄 주니어, ② 일본 주니어, ③ 프랑스 주니어 ●개인전 최종 종합 순위=① 브루스스카(카자흐스탄), ② 프랑스카(카자흐스탄), ③ 페도르프(카자흐스탄) ●한국선수 최종 종합 순위=① 이시훈(한국), ② 임승민(한국), ③ 최동연(한국) ●단체전 최종 종합 순위=① 카자흐스탄 주니어, ② 일본 주니어, ③ 미국 주니어												

경기 예고												
<b>프로야구 &lt;5일&gt;</b>												
<b>•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b>												
KIA (-)	<잠실>	두산 (-)	넥센 (-)	<인천>	SK (-)							
오후6시30분, SPOTV2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롯데 (-)	<대전>	한화 (+)	삼성 (+)	<마산>	NC (+)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대전 C MB, 대전방송-R, KNN-R, 대전MBC-R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대구방송-R, KNN-R, 경남MBC-R									
LG (-)	<수원>	KT (-)										
오후6시30분, SPOTV												
<b>아마추어 경기예고 &lt;5일&gt;</b>												
<b>야구</b>												
●2018 KBO 퓨처스리그 ●LG-KT(익산, 오전11시), 경향-상무(문경), 화성-KIA(함평, 이상 오후1시) ●제 12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일본) ●2018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경주, 포항, 오전9시)												
<b>축구</b>												
●2018 내셔널리그 ●창원-천안(창원종합), 강릉-경주(강릉종합), 부산-대전(부산구덕, 이상 오후7시), 김해-목포(김해운동장, 오후7시30분) ●2018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화천, 오전11시)												
<b>농구</b>												
●2018 KUSF 대학농구 U-리그 ●남자부=건국대-한양대(충주, 오후5시) ●여자부=용인대-한림성심대(용인, 오후5시)												
<b>배구</b>												
●제 29회 CBS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단양군 국민체육센터, 오전9시)												
<b>테니스</b>												
●2018년 제 2차 영월 국제 여자 서킷테니스대회(영월 영월스포츠파크)												
<b>패드민턴</b>												
●2018 전국 가을철 충종 패드민턴 선수권대회(청송, 오전9시)												
<b>펜싱</b>												
●제 23회 김창환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대회(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 오전9시)												
<b>사격</b>												
●2018 ISSF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대회(한국 창원)												
<b>양궁</b>												
●2019년 국가대표 1차 재야 선발전(예천, 오전9시)												